

## 메가커피, 'MD상품' 이슈에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미판매 상품은 반품"

등록 2025.01.17 15:36:34 | 수정 2025.01.17 16:34:25



메가MGC커피 로고(사진=메가MGC커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메가MGC커피가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MD상품 밀어내기' 논란에 대해 가맹점주와 충분히 사전 협의했으며, 모든 미판매 상품은 판매 종료 이후 본사가 반품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메가MGC커피가 네이버웹툰 IP(지식재산권) '가비지타임'과의 협업 굿즈 5종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의 를 받지 않고 가맹점주들에게 초도물량에 대한 금액을 차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IP와 출시한 MD상품은 모든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해 초도 물량을 공급하며, 반대하는 매장에 는 출고하지 않는다"며 "초도물량은 최소금액으로 구성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본사가 MD상품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품 판매 기간이 끝나야 반품과 회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는 "판매기간이 종료된 후에 반품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단 며칠 판매 후 판매량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반품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메가MGC커피는 가맹점주들에게 "판매되지 않은 MD상품은 판매기간 종료 후 전량 본사가 반품을 받겠다"며 "판매기간

동안에는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공지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날부터 2월 7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3층 SQUARE X(스퀘어 엑스)에서 웹툰 '가비지타임' 공식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네이버웹툰) \*재판매 및 DB 금지

일각에서 제기된 본사가 MD상품 판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메가MGC커피는 "MD상품은 IP권리자의 수익 때문에 본사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MD 상품 판매 시 다른 메뉴가 함께 판매되는 업세일링 효과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수익을 확보해야 하고 아무리 인기있는 MD상품이라 해도 남은 재고 상품은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 이용자들 사이에서 네이버웹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메가커피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가비지타임'은 불매 문제와는 무관한 IP"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네이버웹툰은 여성혐오 표현이 포함된 웹툰을 방치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일부 여성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메가MGC커피는 "'가비지타임' 캠페인은 불매운동 시작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불매운동이 발생하면서 10월 예정이었던

캠페인을 12월로 연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불매운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가비지타임' MD상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네이버웹툰 측에 상황 해결을 위한 요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메가MGC커피 대응에 대해 "올바른 후속조치"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메가커피가 되게 잘하고 있네", "상황파악을 잘하고 설명도 잘했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